

청소년시의 가능성 연구*

- 창작 미학을 중심으로

문 신 (원광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 |
| 2. 청소년시의 목표 | 5. 나오며 |
| 3. 시인들의 청소년시관 | |

국문초록

이 글은 2010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문학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시가 새로운 문학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보는 일이 된다. 따라서 창작 미학적 측면에서 청소년시의 독자적 미의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청소년시가 단순한 현상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중요한 문학담론으로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청소년시 현상은 청소년이 문학담론의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소년기를 성인기를 준비하는 예비 단계가 아니라 청소년기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인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면에는 청소년기를 미성숙한 시기라는 보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있으며, 청소년세계가 기성(성인)세계의 하위 세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세계라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는 독자적인 미의식을 갖출 때 문학담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9497)

으로 수용될 수 있다.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을 살피기에 앞서 이 글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불안’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인 ‘불안’을 시적으로 폭로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시는 청소년의 내밀한 영역과 소통하고 청소년세계와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시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낭만적 동경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청소년세계의 모순을 ‘다른 세계’ 속에서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계’는 청소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성(성인)세계를 넘어 선 지점으로, 청소년들이 낭만적으로 동경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청소년시는 부정표현을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청소년시에서 부정은 청소년세계는 물론 기성(성인)세계를 모두 아우른다. 청소년시는 세계의 부정을 통해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다른 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청소년시 현상’을 ‘청소년시 담론’으로 확정하기에는 무리이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시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이면에서 청소년시의 본질과 청소년시가 지향하는 지점을 가려낼 수 있을 때, 청소년시는 ‘현상’이 아니라 ‘장르’가 될 수 있다.

핵심어 : 청소년시, 청소년문학, 부정표현, 낭만적 동경, 불안, 미의식

1. 들어가며

2010년 출간된 박성우 시집 『난 빨강』은 출판시장은 물론 문학담론에서도 ‘청소년시’라는 용어를 확정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학적 사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청소년시’라는 용어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시 현상이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청소년시를

생산, 분석, 해석, 감상할 수 있는 문학담론의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에 있다. 새로운 문학현상이 출현하더라도 그것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거나, 그러한 현상을 담론의 영역에서 다룰 수 없거나 다루지 않는 경우 새로운 현상은 재생산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시라는 용어의 사용과 문학담론으로의 포섭은 청소년시의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¹⁾

그러나 『난 빨강』이 문학담론에서 문제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소년은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비성인이라는 미성숙한 상태로 인식되어 왔다. 청소년은 교육과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청소년의 삶과 사유를 종합해 내는 청소년문화는 하위문화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장담론이다. 청소년문학의 장르적 변별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성장’ 모티프였다. 그러나 『난 빨강』은 청소년이 성인으로 어떻게 성장해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소년 시기 그 자체의 문화, 청소년만의 고민과 갈등을 청소년의 시점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그럼으로써 『난 빨강』은 그동안 청소년문학이 벗어나지 못했던 성인/기성 세계의 이념을 과감하게 돌파함으로써 청소년기 성 담론까지 수용해 낸다.

그럼에도 청소년시 현상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는다.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청소년시만의 독자적인 창작 미학이다. 청소년시가 추구하는 미적 세계는 보편적인 예술 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시적 담론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청소년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²⁾ 청소년시가

-
- 1) ‘청소년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쓴 시에 대한 용어 사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남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시를 ‘청소년 창작 시’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김남희, 「청소년 시에 나타난 심리적 문제와 문학교육의 방향」, 『문학치료연구』 제4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270쪽.
 - 2)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시가 청소년들의 경험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대변’해준다는 관점이다. 권유성, 「청소년 시의 장르적 특성 연구」, 『어문론총』 7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59쪽.

청소년 ‘독자’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시의 미의식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창작활동이 독자를 의식한다는 것은 창작 미학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는 뜻이다.³⁾ 그런 까닭에 청소년시의 창작 미학에 대한 탐색은 “청소년문학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주제적으로 참여하는 문학으로 발전해야 한다”⁴⁾는 전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문학에서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청소년시를 창작하고 있는 시인들의 청소년시관을 검토하고, 현재까지 창작된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문학에서 미를 형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청소년시가 무엇을 (내용) 어떻게(표현방식) 다루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청소년시가 새로운 문학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시를 바라보는 창작자의 시선은 향후 청소년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며, 현재까지 나타난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장 및 심화되면서 청소년시만의 변별적 자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시의 창작 미학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시가 하나의 장르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2. 청소년시의 목표

청소년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청소년시의 본질을 따져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발현되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가 어떤 계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시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3) 오세란, 『청소년문학의 정체성을 묻다』, 창비, 2015, 21쪽.

4) 황선열, 『청소년과 인문학의 향기』, 신생, 2013, 134쪽.

수밖에 없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왜 청소년시가 필요한지를 묻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문학을 바라보는 청소년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현실성이 있어야죠. 너무 결말이 당연하게,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현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현실을 극복해서 악한 주인공이 착해지는, 그런 건 보고 나면 후회하게 돼요.”⁵⁾ 이 발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실성”은 ‘청소년의 현실’에 관한 속성을 말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악한 주인공이 착해지는, 그런” 뻔한 드라마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문학이 성장담론의 틀에서 미성숙한 상태의 청소년이 문학적 사건을 경험한 후 성숙한 세계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들에게 ‘현실성’은 성숙-미성숙의 대립 관계 해소가 아니라 청소년만의 고민과 갈등의 본질을 직시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본질인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독자로서 읽은 몇 권의 국내 청소년문학에 대한 감상뿐인데, 솔직히 그동안 읽은 작품들은 대개 재미가 없었다. 도통 흥분을 느끼지 못했다. 물론 문학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꼭 흥분이어야 할 이유는 없고, 그런 문학이 주는 감동과 재미 중에서 일부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기라면 다르다. 흥분은 인생의 양념이 아니라 전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시기에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문학에는 독자를 흥분시킬 그 무언가가 늘 모자라다. 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춘’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를 ‘청소년’으로 대하는 것과 ‘청춘’으로 대하는 것에는 어감부터 큰 차이가 있다. ‘청소년’이라면, 지금 무척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너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 하며 격려하는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청춘’이라고 하면 마치 내일이 없는 듯 좌충우돌하며 자신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진다. 현시점에서 나는 청소년보다 청춘에 더 끌린다. 어른이 되고 나니 더 그렇다.⁶⁾

5) 김훈 외, 『좌담: 청소년문학의 길을 묻다』, 『창비어린이』(2006. 12), 창비어린이, 2006, 14쪽.

인용문은 청소년의 청소년다운 ‘현실성’에 주목하면서, ‘홍분’을 청소년기의 변별적 자질처럼 여긴다. 청소년들에게 “홍분은 인생의 양념이 아니라 전부” 일 수 있으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책무”라고 생각한다. 물론 ‘홍분’이라는 정서 상태에 관해 보다 엄밀한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홍분’을 일상적 용법에 따라 이해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고양되면서 어떤 극점을 향해 도약해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박숙경은 이와 같은 ‘홍분’이야말로 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정서적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이 없는 듯 좌충우돌하며 자신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서, ‘청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청소년문학에서 ‘홍분’과 ‘청춘’을 기대하는 것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기에 감정적 홍분 상태가 빈발하는 것은 사춘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생식계의 변화나 2차 성징뿐만 아니라, 심장과 심혈관계의 변화, 호흡계에 영향을 미치는 폐의 변화, 근육의 힘과 크기의 변화 등이 동반”⁷⁾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로 사춘기는 넓은 의미에서 신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사건은 키가 커지는 것처럼 물리적인 변화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리, 몽정 같은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 등 생화학적 측면과 그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반응 등을 포함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 불편함은 일반적으로 ‘불안’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불안은 초경이나 몽정 같은 신체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미흡할 때 발생한다. 경험이 개인화됨으로써 보편적, 세계적 차원의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이 같은 신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큰 폭의 변화를 요구한다. 청소년기는 보통 성인, 즉 기성사회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인식되면서, 독자적인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획득

6) 박숙경, 『보다. 읽다. 사귀다』, 창비, 2013, 61쪽.

7) John C. Coleman, Leo B. Hendry 지음, 강영배 · 김기현 · 이은주 옮김, 『청소년과 사회』, 성안당, 2006, 37쪽.

득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에 노출된다. 가장 큰 것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습의 양적, 질적 변화이다. 신체적 사건이 몸의 성숙에 따른 낮삶의 불안을 야기한다면, 학습수준의 변화는 정신적, 이성적, 개념적 낮삶을 동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불안이나 인지적 부조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이처럼 신체적으로는 성인 사회에 진입하였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일종의 ‘위험 사회’에 속하게 된다.⁸⁾

청소년기의 한 특징으로 청소년들의 삶이 ‘위험 사회’에 속한다는 사실은 신체적 사건 등을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 속으로 청소년들이 내던져지고 있음을 말한다. 유소년기가 기성세대의 보호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비하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안정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잦다. 그것은 정상성-유소년기에 만끽할 수 있었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의 비정상적 발현이다. 이 과정을 청소년 문학에서는 ‘성장’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박성우의 청소년 시집 『난 빨강』에 보이는 「몽정」 같은 시가 그러한 신체적 사건을 통해 청소년기의 ‘불안’을 드러내는 예가 된다. 『난 빨강』은 그동안 아동문학이나 청소년문학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청소년들의 성적 고민을 전면으로 노출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의 ‘불안’ 감각에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⁹⁾ 이처럼 청소년기에 맞닥뜨리는 신체적 성장은 신체적 변화가 정서적 불안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그 자체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

또 하나, 청소년기의 특징으로는 기성사회로의 편입 경쟁이 극심하다는 점

8) ‘위험 사회’는 근대성과 연관된 개념으로, 문명 이전의 자연 사회에 비해 문명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술적·물질적 발전이 인간 소외를 야기하고, 소외된 인간은 실존적 고독과 불안에 노출된다. 불안과 소외감이 심리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인간 문명의 발전에 따른 산업공해, 핵무기, 자연재해 등은 물리적 차원의 위험 요소가 된다.

9) 박성우는 아동 청소년의 운문 영역에서 금기시되었던 흡연, 몽정, 자위, 가출, 2차 성징 등의 구체적 표현과 어른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야유 등에 이르기까지 시적 소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안, 『다 같이 들자 동네 한 바퀴』, 문학동네, 2014, 197~198쪽.

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개별적인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 이 시기에 오면 청소년들은 개인의 욕망을 인지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발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유소년기에 비해 청소년기에는 실수의 허용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청소년기에 새롭게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다.¹⁰⁾ 그것은 기성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 중심에 놓인 것이 ‘생산성’이다. 이를테면 청소년기는 사회적 생산을 위한 준비 단계이며, 그러한 생산성에 대한 경쟁적 요소가 청소년들에게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은 ‘경쟁’이라는 시스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경쟁은 자질의 상호교환성에 의지하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자신들이 거둔 성과의 개인성과 독특함을 선전해야만 한다. 경쟁의 압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사람들 사이의, 정확히 말하자면 배경이 같은(같은 교육과 경험과 지식이 비슷한) 상호작용 및 행위영역 내에서 개인주의화가 진행된다. 특히 그처럼 여전히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곳에서 공동체는 경쟁이라는 산성 목욕물 속으로 녹아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은 비슷한 사람들의 평등을 침식하지만, 제거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동질적인 사회집단들 내부에서 개인들의 분리를 야기한다.¹¹⁾

10) 물론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도 그러한 일에 지적, 신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사회의 시스템은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역할 수행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기성세대의 감독과 지휘 아래에서만 청소년들은 통제적·수동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태도는 청소년들의 ‘흥분’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까닭에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책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러한 욕구불만을 해소할 대체물을 찾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Andy Furlong · Fred Cartmel, 강영배 · 손의숙 · 전명호 · 정철상 옮김, 『현대사회와 청소년』, 박학사, 2008, 22쪽.

청소년들의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쟁’이라는 낯선 영역으로의 진입이다. “교육적 ‘성공’의 징표인 학교졸업장은 이후의 진로를 더욱 촉진”¹¹⁾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학업 성취의 중압감은 가중된다. 이제 학교는 공동체의 윤리를 학습하고 친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익히는 콜로키움(colloquium)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검투사들의 콜로세움(Colosseum)이 되어버렸다. 신체적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변화 양상을 토로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콜로키움의 부재와 콜로세움의 부각은 청소년기를 특징짓는 상징적 구도가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불안이라는 개인의 축과 경쟁 시스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의 축을 함께 가지고 있다. 문학이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과 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선다면, 청소년시가 구축해야 할 미적 성취의 지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의 두 축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을 사회적 공감과 공유의 발전적인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3. 시인들의 청소년시관

청소년시의 정체성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인들의 인식에 좌우된다. 청소년을 완벽한 독립 인격체로 보느냐 미성숙한 인격체로 보느냐에 따라, 청소년시가 청소년들을 둘러싼 제반 사건이나 사태의 본질을 폭로하는데 기여해야 하느냐 아니면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동되어야 하느냐

11) 율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1997, 163쪽.

12) Andy Furlong · Fred Cartmel, 앞의 책, 37쪽.

나에 따라 청소년시의 미적 자질은 달라진다. 청소년시에 나타난 시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시적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어른들이 몰라준다고 너무 오래 빠치지는 마요.
초록으로 가는 연두이거나 툭툭 튀는 빨강, 같은
청소년 친구들이여. 그렇다고 또 너무 철들지도 마요.
아직 많은 것들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니까.

—박성우, 「시인의 말」, 『난 빨강』(창비, 2010) 중에서

인용문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어른들이 몰라”보는 세계이면서 청소년은 “아직……어른이 아”닌 존재들이다.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어른들의 세계와는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기는 “초록으로 가는 연두”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기 혹은 기성세계로 이행해가는 도상의 한 지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다만, 이 시기의 특수성을 박성우 시인은 “툭툭 튀는 빨강”에 빗댄다.

청소년기가 ‘홍분’의 어떤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툭툭 튀는’ 상태야말로 ‘홍분’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빨강’이라는 색채상징을 통해 강렬한 정체성을 부여해놓았다. ‘빨강’으로 상징되는 청소년들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비교육에서 창비청소년시선을 기획하면서 내세운 “청소년의 일상 경험과 정서를 다루며 청소년의 감수성에 호소”¹³⁾하는 것이 청소년시의 한 모습이라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청소년이 공감하며 다가갈 수 있는 시, 청소년에게 마음을 열어 다가가는 시,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껴안고 뒹굴며 함께 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시”¹⁴⁾이다. 그리하여 “청소년시는 일차적으로 성장기 청소년의 삶의 갈피에서 길어 올린 생각과 느낌을 청소년의 목소

13) 강성은 외, 『의자를 신고 달리는』, 창비교육, 2015, 115~116쪽.

14) 같은 책, 116쪽.

리로 노래하는 시라는 장르적 성격”¹⁵⁾을 획득한다. 박일환 시인도 “청소년들의 감성과 이해 수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밀착한 시”¹⁶⁾라고 청소년시를 잠정적으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을 위해서”¹⁷⁾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¹⁸⁾에 청소년시를 쓴다고 밝힌다. 지금까지 출간된 청소년시집에서 시인들이 밝히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시에 대한 입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적어도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방향이 어느 쪽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또 고민을 방황으로만 끌고 가게 놔두고 싶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현실은 너무 궁핍하지만 꿈을 모른 채 살아가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깨지더라도 삶이라는 커다란 바윗덩이에 당당하게 부딪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¹⁹⁾
- ② 획일화된 삶의 모습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청소년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가슴 안에 숨겨진, 혹은 시들어 가는 ‘나’라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기를 바란다.²⁰⁾
- ③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지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글들이 마음의 어디쯤 비껴 마르고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가 당신이 잊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싹틔우기를 바랍니다.²¹⁾

15) 같은 곳.

16) 박일환, 「시인의 말」, 『학교는 입이 크다』, 한티재, 2014, 100쪽.

17) 같은 책, 101쪽.

18) 같은 책, 102쪽.

19) 안오일, 「시인의 말」, 『나는 나다』, 푸른책들, 2014, 115~116쪽.

20) 김선경, 「시인의 말」, 『뽕뽕』, 푸른책들, 2016, 124~125쪽.

21) 신지영, 「글쓴이의 말」, 『넌 아직 몰라도 돼』, 북멘토, 2013, 174쪽.

- ④ ‘청소년’이란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어. 그중에 나는 ‘미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완성을 지향하는 상태. 정해진 것이 없기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매력인 거지. 완성되어 정지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의 바늘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미완. 시도 어찌면 그런 문학일지 몰라. 시의 생명인 ‘새로움’은 인생으로 치자면 청소년이야.²²⁾
- ⑤ 청소년들의 영혼은 눈처럼 순결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놓인 10대 시절이야말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찬란한 시기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때에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이나 친구, 가정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은 한없이 고통스럽습니다.²³⁾
- ⑥ 동시가 있고 시가 있는데 청소년시가 왜 필요하냐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청소년 시기에 맞는 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그 나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나름의 문화가 있고 청소년 나름의 세계가 있고 청소년 시기의 고민이 있습니다.²⁴⁾

①~⑥ 모두 청소년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①과 ②에서 강조된 것은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나’라는 자기정체성이다. 청소년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은 ‘나’의 존재론적 입장을 넘어 그것의 사회적 위상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요소, 즉 독립적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관계적 자아의 형성이

22) 조재도, 『시인의 말』,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 창비교육, 2015, 114쪽.

23) 채지원, 『시인의 말』, 『대단한 놈들이다』, 창비교육, 2016, 92쪽.

24) 복효근, 『시인의 말』, 『운동장 편지』, 창비교육, 2016, 120쪽.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와 ⑤는 청소년을 성인이 되기 이전의 미성숙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완’의 존재이며, 그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한다. 그러나 ‘미완’의 의미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가능성’으로 바라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놓인 10대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찬란한 시기”라고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는 청소년들을 기성 세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계몽적·계도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지가 있다. “어른들에게 청소년은 이유 없이 괜한 심통을 부리는 존재일 뿐이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조건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로 비쳐질”²⁵⁾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종래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시는 청소년 자신이 미완성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이끈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청소년의 얼굴과 목소리를 생생히 드러내는 데 둔감했다.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현실과 솔직하게 대면하는 시, 그들의 말법과 정서와 호응하는 시를 발견해내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²⁶⁾에 대한 반성이 먼저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제 ‘미완’의 존재이자 ‘순결’한 상태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태도로는 청소년들의 존재론적 불안과 현실적 고민을 해명해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⑥의 관점은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시의 범주를 규정한다. “청소년 시기에 맞는 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시야말로 청소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그 시기에 맞는 ‘나름의 문화’와 ‘나름의 세계’, 그 ‘시기의 고민’이 있고, 청소년시는 바로 그것들을 시적 형식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름’의 형식과 내용이다. 청소년시가 청소년들의 삶과 사유를 그 근원의 지점에서 포착해낼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 ‘나름’의 문화와 세계를 발견해내는 눈이 필요하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일상과 고민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때 포착해낼 가

25) 김제곤, 『파란색 고양이와 셔플 댄스를』, 박성우, 『사과가 필요해』, 창비, 2017, 132쪽.

26) 김제곤, 『푹푹한 연두, 발랄한 빨강』, 박성우, 『난 빨강』, 창비, 2010, 114~115쪽.

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시는 청소년 ‘나름’의 세계와 문화에 근접해가는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존재론적 위상 또한 그들 ‘나름’의 세계 속에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시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

4.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

청소년시라는 새로운 현상은 그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력이 있다. 그 지점을 청소년시가 나타나게 된 기원이라고 할 때, 그 기원 자체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청소년시가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소년시 현상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시의 현재를 지탱하는 본질과 같다. 청소년시 내부에 이미 청소년시의 발생 이유와 동력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청소년시의 미적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하며, 청소년시의 미적 특성은 또한 청소년시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청소년시의 주제의식과 형식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물론 향후 형성될 청소년시의 가능한 정체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4.1. 청소년시의 주제의식: 낭만적 동경의 포즈

개인의 삶은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시간적·공간적 요소를 삶의 방식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 개인을 둘러싼 자연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은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며, 개인은 그러한 환경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성해간다. 그런 까닭에 환경 요소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시가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인 ‘학교’에 집중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학생 신분이라는 사회적 위치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기의 고민이 ‘학교’와 관련되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시는 학업 성취의 문제, 진학 문제, 교우 관계, 교사와의 갈등 등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이 피었습니다

보충수업꽃 지기도 전에
야자꽃이 또 피었습니다

— 박일환, 「가여운 슬래」 전문²⁷⁾

2연으로 된 이 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1연 9행의 구조이다. 고등학교 수업은 주간에 1교시부터 9교시까지 편성되고, 저녁식사 이후에 야간보충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1연 9행은 주간에 진행되는 정규 수업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화자가 모든 수업 시간을 ‘보충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청소년 화자가 기대하는

27) 박일환, 앞의 책, 70쪽.

학교 수업의 형식과 내용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그것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업 형식과 내용은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과는 분명 다르다. 그런 점에서 정규 수업 시간까지 ‘보충수업’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 수업 시간마다 편성된 교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등 다양해야 하지만, ‘보충수업’이 진행되는 수업 시간은 오직 ‘입시’ 하나로 수렴된다. 청소년들이 학교 세계에서 처해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이 이 시에는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청소년 세계의 문제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시는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 세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해가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청소년 독자의 세계 이해 방식에 부합한다.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에 대한 경험이 미흡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표면적이고 직접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추상이나 개념을 볼 수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결여하고 있는 ‘내면성’에서 비롯된다. “시험 하루 전/핸드폰 깜박깜박/알람은 째깍째깍/가슴은 두근두근//잠도 오지 않는/시험 하루 전날”²⁸⁾처럼 청소년들은 나타나는 현상 자체에 반응한다. 그런 이유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학교 세계와 정반대 되는 세계에 대한 낭만적 동경이 있다. “학원 못 가게 하고/보충야자 시간에도/스마트폰 게임만 죽도록 하고 집에 가도 되는//그래도 공부하라는 말은 안 하는”²⁹⁾ 학교 세계를 동경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학교 세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고민’은 언제나 표면화된 것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청소년기의 인식적 한계 때문에 청소년시는 다소간의 피상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학교 수업의 틀이나 잣대를/견디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기죽지 않도록/나는 끝까지 그들을 격려하는/선생이고 싶다”³⁰⁾는 것

28) 조재도, 「시험 전날」, 앞의 책, 46~47쪽.

29) 복효근, 「꿈의 학교」, 앞의 책, 61쪽.

30) 채지원, 「학교」, 앞의 책, 44~45쪽.

이나 “비록 지금은/조화처럼 책상에 앉아/공부를 하고 있지만//나도 좋아//난 꿈 많은 소녀거든”³¹⁾처럼 구체적 상황이나 가시적 상태보다는 낭만적 동경의 포즈를 취하는 것이다.

학교 안 갈 거야?

-아, 지금 가잖아요

학원 잘 갔다 왔니?

-아, 그럼 못 갔다 와요?

너, 자꾸 말 쏘아 댈래?

-아, 뭘 쏘아 댄다고 그래요

넌, 뭐가 그렇게 짜증 나니?

-아, 그냥 다 짜증 나요

- 박성우, 「사춘기, 다 짜증 나요」 전문³²⁾

이 시는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겪음직한 장면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기 청소년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타자-가족이 중심-에 대한 소극적 적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표면화된다. 소극적 적의란 타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수준의 적의가 아니라 타자와의 소통, 관계, 대화 등을 차단하는 형식을 말한다. 그렇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소극적 적의는 투정에 가깝다. 사춘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도 그 관심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태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가족들과의 거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가족들이 자기를 향해 주의를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이

31) 이장근, 「조화도 좋아」, 『악어에게 물린 날』, 푸른책들, 2014, 34~35쪽.

32) 박성우, 『사과가 필요해』, 창비, 2017, 33쪽.

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청소년들의 자기 내면에 대한 발견과 관심이 있다. 내면을 향한 자기 시선의 집중으로 인해 타자와의 교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은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 특히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부모와의 대화에서 툭툭 내뱉는 말투는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형식이지만,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부모의 관심은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에 부모가 그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냥 다 짜증 나요”라는 진술 행위는 ‘나 좀 내버려둬요’라는 기호와 ‘저만치에서 나를 지켜봐주세요’라는 기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인 학교 세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외적 행위 사건들이 한 축을 지탱하고 있고, 다른 한 축은 청소년들의 내적 정체성을 향한 관심과 탐색의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외적 사건과 내적 탐색의 동시적 전개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복잡성을 최초로 일깨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내외적 혼란은 ‘다른 세계’를 피상적·낭만적으로 동경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나름의 문화이자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지만, 그 부정을 청소년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물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혼란한 상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에는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과 인식 주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부정의 방식이 그 부정 자체가 투입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향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중첩되는 부정 형식(환경에 대한 부정과 자신에 대한 부정)과 그것을 무(無)로 돌리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내용 요소를 형성한다.

4.2. 청소년시의 표현방식: 부정형식의 자기주체성

청소년 세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며, 그러한 이유로 표현방식에 대한 탐색은 청소년시의 창작방법을 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다. 또한 표현방식은 창작주체가 시적 대상인 청소년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시에 나타난 표현방식은 청소년 세계를 이해하는 기성세계의 관점이 된다. 물론 청소년시의 방법론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온 보편적인 시 문법의 범주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럼에도 청소년시만의 표현방식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자적인 미적 방법론이 있을 때 청소년시의 문학사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학 왔다고
이전 학교에서 문제 있어 강제 전학됐다고
늘 색안경 끼고 바라본다면
그 아인 뭐가
세상 어느 틈에도 발 딛기 힘든
이 좁다란 지구 위에
외로운 아이
쌍꺼풀 만들기 위해 풀 좀 붙이면 안 되나
방학 때 머리에 살짝 물 좀 들이면 안 되나
뭘 하든 죄인을 만드는 시선들
시들어 가는 풀꽃
어른들의 잣대 속에 시무룩
끼를 잃는 아이들
흥을 잃는 아이들
19세기 교실의 비애

— 채지원, 「19세기 교실」 전문³³⁾

33) 채지원, 앞의 책, 42쪽.

청소년시에서 줄곧 발견되는 표현방식은 개별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들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집단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시에서도 “외로운 아이”인 전학생의 문제를 ‘아이들’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있다. 물론 ‘외로운 아이’는 이 시에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다. “끼를 잃”고 “홍을 잃”은 “19세기 교실의 비애”를 형상화하기 위해 상상된 하나의 상황이 “강제 전학”의 문제를 발견하게 했다. 이는 구체적 사건, 개별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시적 주체의 문제로 수렴해가는 보편적인 작시(作詩) 과정과는 다른 형식이다. 청소년시의 창작 주체는 청소년을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청소년 집단을 인식 단위로 삼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비애’가 아니라 ‘교실의 비애’가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시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청소년 세계가 개별 청소년의 세계보다는 청소년이라는 세대의 문제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잘못 탄 버스 때문에/잘못 탄 기차 때문에/……// 목적지를 한참이나 지나/뒤늦게 부랴부랴/처음 방향으로 다시 갈아타야 했던 적//요즘 들어 열일곱/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아”³⁴⁾도 ‘내 인생’에 관한 담론이라기보다 ‘열일곱’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이처럼 청소년시에 형상화된 청소년의 문제나 청소년 세계의 담론은 집단화되고 보편화된 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소년이라는 우리 사회 계층 집단의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 일단 청소년은 학교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미성년이라는 담론 속에 놓여 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라는 틀 안에서 그들은 개별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별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종족으로 인식된다. “아이족과 어른족/경계에 사는 아른족”³⁵⁾이 청소년시에 반영된 청소년의 모습인 것이다. 이들은 “기러기처럼 가끔은/내 삶을 벗어나/누군가의 뒤쳐진 시간을 위해/함께 기다려주고/함께 고통을 나누다/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걸까”³⁶⁾라며 공동체의 일

34) 김선경, 「너도 그런 적 있니?」, 앞의 책, 92쪽.

35) 이장근, 「지구에 세 종족이 산다」, 『파울볼은 없다』, 창비교육, 2016, 75쪽.

원이 되고자 한다. 청소년시에서 청소년 개인의 고민보다는 청소년의 고민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벌레 먹은 놈/크기는 한데 털 익은 놈/새빨강게 익은 놈/햇빛을 못 받아 털 자란 놈/상처 하나 없이 반들반들한 놈/가지가지 모였다//모두 모여 멋진 사과나무 한 그루 만들었다”³⁷⁾처럼 청소년시는 사과 한 알의 개별성을 포기하고 “사과나무 한 그루”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시에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방식은 부정표현과 긍정표현의 과도한 사용이다. 부정의 포즈는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변증법의 관점에서 ‘반’의 역동성은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치열한 힘의 작동이다. 청소년기가 과도기적 시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유소년기를 탈피하여 성인기로 질적 전환을 꾀하는 ‘반’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부정표현은 그러한 청소년기의 본질적 특성을 발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청소년시에 나타난 부정표현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계를 전제한 후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나 목표로 삼은 세계에 이르지 못하는 좌절의 상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청소년시의 긍정표현은 청소년이 처한 현실 너머를 낭만적으로 동경하는 차원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의 현실과는 다소 유리된 입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탄 버스는요
좌석에 앉기도 전에 출발을 해요
안내 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요
뒤에 공간이 많아도 앞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벨을 누르지 않으면 정류장인데도 서지 않고요
정류장에 혼자 서 있을 때는 손을 흔들어야 세워 줘요
어떤 정류장은 경쟁이 치열해서 못 타기도 하고
내릴 때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에게 막혀 못 내리기도 하고

36) 이삼남, 『동행』, 김남극 외, 앞의 책, 75쪽.

37) 안오일, 『우리 반』, 『그래도 괜찮아』, 푸른책들, 2011, 79쪽.

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해요
 차가 밀려 있을 때는 위험한 도로에 내려 주기도 하고
 큰 소리로 핸드폰을 하는 어른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학생들이 떠들면 버럭 소리를 질러요
 제가 앉은 일반석은 노약자가 타면 가시방식으로 변하고
 노약자도 아니면서 어른들은 노약자석에 앉아 있어요
 당당히 돈 내고 탔는데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탄 학교라는 버스는요
 어딘가로 바쁘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은 길을 돌고 돌기만 해요

— 이장근, 「교통이용불편신고엽서」 전문³⁸⁾

청소년들이 소년기와 청년기,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경계에 존재하는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변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³⁹⁾ 변화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자기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계 넘기의 욕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망을 기성세계의 관점에서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변화라고 말하지만, 청소년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도래하는 세계는 성인들이 세계, 기성의 세계가 아니라 청소년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교통이용불편신고엽서」의 화자가 바라보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화자의 눈에 비친 ‘버스’라는 상징 세계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성인들의 세계라기보다 청소년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가깝다. 그 세계는 청소년들이 경험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청소년은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며, 당연히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청소년시에 부정인식과 부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청소년시에는 다른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론이 상투적인

38) 이장근, 『악어에게 물린 날』, 푸른책들, 2012, 64쪽.

39)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2, 39쪽.

부정 술어 표현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한 형식은 '(세계) 부정+(세계) 부정+……=(자기) 긍정'이라는 깨달음의 패턴으로 도식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식은 미학적으로 실패한 방법론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그 결과 새로운 각성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청소년 스스로 세계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미적 의의가 있다.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한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시에 나타나는 부정표현은 청소년 스스로 객체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로 나아가는 인식적 방법론이다. 그런 점에서 표현 방식의 긍정-부정의 극단은 청소년기 특유의 심리적 기제를 활용하는 시적 전략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5. 나오며

청소년시는 이십일 세기에 대두된 중요한 문학 현상을 넘어 이미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시 현상을 이끌었던 출판 자본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집을 발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청소년시를 비평적·학술적 연구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시 담론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시는 독자적인 미적 영역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일정한 성취에 도달한 작품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더라도 청소년시는 여전히 그 독자성을 충분히 인정받지는 못했다. 시 장르의 보편 법칙을 수용하면서도 청소년시만의 독자적인 미의식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글은 그동안 창작된 청소년시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시가 동시처럼 독자적인 장르로 인식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시는 본질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적 상황을 통해 외부로 폭로함으로써 청소년의 불안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청소년시는 이와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낭만적 동경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청소년세계의 모순을 ‘다른 세계’ 속에서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시가 청소년시기를 성인기를 준비하는 예비적 시기로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시에서 ‘다른 세계’는 청소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성(성인)세계를 넘어 선 지점이다. 그 세계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시기에 낭만적으로 동경하는 바람직한 세계 내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에 가깝다. 이러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청소년시에는 부정표현을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때 청소년시의 부정표현이 노리는 효과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시의 부정표현은 청소년세계는 물론 기성(성인)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그와 같은 세계의 부정을 통해 청소년은 주체적으로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다른 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시에는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의 자세가 강조되고, 표현방식에서는 부정형식을 통한 자기 존재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미적 자질이 청소년시를 독자적인 시 장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임에 틀림없으나 그것만으로는 ‘청소년시 현상’을 ‘청소년시 담론’으로 확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양하게 창작되고 있는 청소년시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놓인 청소년시의 본질과 그 지향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때, 청소년시는 ‘현상’이 아니라 ‘장르’가 될 수 있다. 청소년시를 쓰는 시인들의 다양한 미적 방법론을 기다리면서 청소년시가 문학 담론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강성은 외, 『의자를 신고 달리는』, 창비교육, 2015.
- 김남극 외, 『처음엔 뼈뺏하게』, 창비교육, 2015.
- 김미희, 『외계인에게 로션을 발라주다』, 휴머니스트, 2013.
- 김미희,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준 프러포즈』, 휴머니스트, 2015.
- 김선경, 『뱅뱅』, 푸른책들, 2016.
- 박성우, 『난 빨강』, 창비, 2010.
- 박성우, 『사과가 필요해』, 창비, 2017.
- 박일환, 『학교는 입이 크다』, 한티재, 2014.
- 복효근, 『운동장 편지』, 창비교육, 2016.
- 신지영, 『넌 아직 몰라도 돼』, 북멘토, 2013.
- 안오일, 『그래도 괜찮아』, 푸른책들, 2010.
- 안오일, 『나는 나다』, 푸른책들, 2014.
- 이장근, 『악어에게 물린 날』, 푸른책들, 2011.
- 이장근, 『나는 지금 꽃이다』, 푸른책들, 2015.
- 이장근, 『과울볼은 없다』, 창비교육, 2016.
- 조재도,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 창비교육, 2015.
- 채지원, 『대단한 놈들이다』, 창비교육, 2016.

2. 논저

- 권유성, 「청소년 시의 장르적 특성 연구」, 『어문론총』 7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 김남희, 「청소년 시에 나타난 심리적 문제와 문학교육의 방향」, 『문학치료연구』 제4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 김 훈 외, 「좌담: 청소년문학의 길을 묻다」, 『창비어린이』(2006. 12), 창비어린이, 2006.

-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2.
- 박숙경, 『보다, 읽다, 사귀다』, 창비, 2013.
- 오세란, 『청소년문학의 정체성을 묻다』, 창비, 2015.
-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1997.
- 이 안,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문학동네, 2014.
- 황선열, 『청소년과 인문학의 향기』, 신생, 2013.
- Andy Furlong · Fred Cartmel, 강영배 · 손의숙 · 전명호 · 정철상 옮김, 『현대 사회와 청소년』, 박학사, 2008.
- John C. Coleman, Leo B. Hendry 지음, 강영배 · 김기현 · 이은주 옮김, 『청소년과 사회』, 성안당, 2006.

【Abstracts】

A Study on Possibility of Youth Poetry

-Focusing on creative aesthetics

Moon, Shin

This article examin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youth poetry that is actively being created from 2010. This is a preliminary assessment of whether or not the youth poetry, which appears as a literary phenomenon, can form a new literary discourse. Therefore, if we can produce the aesthetic sense of youth in the aspect of creative aesthetics, it is not only a mere phenomenon but also a possibility to communicate with important literary discourse in the 21st century.

The reason why youth poetry phenomenon is important is that teenagers are beginning to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literary discourse. Thi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when adolescence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world rather than as a preliminary stage for adulthood. Behind that, there is a new attempt to escape the universal perception that adolescence is immature, and there is a premise that the adolescent world is not a sub-world of the established world but an independent world. Therefore, youth poetry can be accepted as literary discourse when it has its own aesthetic sense.

Before examin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youth poetry,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goal should be to discover the physical and mental 'anxiety' in adolescence and to share it socially beyond individual dimensions. This is a poetic exposition of anxiety, an important feature of

adolescence. Through this process, youth poetry will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inner circle of the youth and empathize with the youth world. In pursuit of these goals, youth poetry has shown that romantic longing is a central theme and that the contradictions of the youth world are being resolved in the 'other world'. The 'other world' mentioned here is a world that exists beyond the ready-made (adult) world that affects the youth world and exists in the imagination that young people are romantically admired.

In order to express such a world, youth poetry adopts negative expression as a methodology. Negative in teenagers encompasses both the adolescent and adult worlds. Youth poetry admires the 'other world' through the denial of the world and creates its identity in the context of 'other world'. Of course, it is unreasonable to determine 'the phenomenon of youth poetry' as 'discourse of youth poetry'. Therefore, when the youth phenomenon of the present time is examined carefully and the essence of the youth poetry and the point where the youth poetry is aimed at can be found out from behind, the youth poetry can be a 'genre' have.

Key words : youth poetry, Adolescent's Literature, negative expression, romantic longing, anxiety, aesthetic sense

이 논문은 2018년 10월 0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